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고1 공통 유형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인간에게 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 겨울 어두운 밤에 거행되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술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취와 광기에 빠지게 한다. 술의 기능 중 으뜸가는 기능은 취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리고 취하는 목적은 이성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술은 현실의 고통과 번뇌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고마운 벗이다.

초창기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노예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디오니소스를 삶의 은인으로 여기고 열렬히 추종한 것이다.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을 마이나데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광기(狂氣)를 뜻하는 영어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집을 버리고 무리를 지어 산과 들을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도취의 상태에서 야간 집회를 가지는데, 지팡이를 광적으로 흔들고 팀파논이라는 작은 북을 미친듯이 쳐댔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한을 토해내듯 발악을 하고 광란의 춤을 춘다. 하지만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뜻하는 바는 단지 도취에 빠지고 동물적 본능이나 분출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도취된 상태는 흔히 인간의 예술적 창조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나)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주법을 실행에 옮겨본 나라다. 19세기 말부터 기독교계의 금주 주장을 일부 주가 수용한 후 점차 분위기가 확산되더니 급기야 1920년에는 전국적인 금주법을 제정해 10년 넘게 운용했다. 그러나 이 금주법은 미국 사회에 더 큰 후유증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 위안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밀주에 매달리게 됐고 결국 '금주법 위반자'라는 수많은 위법자만 양산했다. 마피아같은 범죄 집단은 이 기회를 이용해 급속히 세력을 신장해 나갔다. 은밀하게 술이 제조되고 검증 없이 유통되다 보니 형편없는 질의 술이 판을 쳤고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상해 사망률도 높아졌다.

술이 없으면 천국이 구현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술이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암흑의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 1932년 금주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하는 날, 많은 미국인들이 식민 상태에서 독립을 얻은 것처럼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풍선을 누르면 압력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다시 튀어 나온다. 인간의 욕망도 누르면 다른 식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 술 취한 사회보다 술 없는 사회가 도덕적 우위에 선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인간은 도덕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존재다. 어떤 때는 제 정신을 차리고 매진하다가도 어떤 때는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인지도 모른다. 도덕적 규범이 가장 요구되는 가톨릭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던 말이요?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던 말이요?”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저... 첫째는 핫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췄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苦笑)한다.

“틀렸소, 잘못 알았소. 핫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흘려 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나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取)할 뿐이요.”

하더니, 홀연 어조(語調)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아, 유위유망(有爲有望)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하고, 긴 한숨을 내어쐬다. 물큰물큰한 술냄새가 방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흥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핫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요.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요.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어나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허, 기막혀. 그 한 분자(分子)된 이상에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 가보야.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무어라 할까...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요.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헤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 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되어, 단 이틀이 못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들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 적으니...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會)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루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 올라오고...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다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 문화가 대단히 고상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어 왔다. 술을 음식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음식물로 인정한 우리 민족은 술 자체를 숭상할 뿐 아니라 술에 따른 그릇까지도 중시하여 특별하게 제작하였다. 술 마시는 예절을 소학에서 가르침으로써 누구나 술 마시는 범절이 각득하였으며, 술을 먹는 모임에는 모름지기 노래와 춤과 시조를 곁들임으로써 운치를 돋우어 우아하고 고결한 풍류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술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의 주량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명심했다. 성인례를 치룬 성인에게만 술을 권했다. 즉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체력이 강건한 사람만이 술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임을 뜻한다. 체력이 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정신박약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음주전통이 곧 술을 대단히 고귀한 음식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남으로부터 ‘술을 대접받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한 인격자임을 뜻하게 되어 영광이 되었던 것이다.

(마) 대체로 중국에서는 술 마시는 법이 매우 조출하여,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반드시 데워 마시고, 비록 소주라도 역시 데워 마신다. 술잔은 은행 크기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이에 대고 조금 빨아 마시고 남겨서 도로 탁자에 놓았다가 잠시 후에 또 마시곤 하여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일이 없다. 이른바 속되게 주발, 대접 따위로 마시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하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마시고, 소위 술집이란 모두 향아리 창에 새끼 문짝의 초라한 집인데, 길 왼쪽 조그만 헐문에다가 새끼로 발을 만들어 드리우고, 헌 칠팔로 등을 만들어 단 집이면 틀림없이 술집이다. 우리 시인들이 흔히 푸른 주기(酒旗)란 말을 쓰지 마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우리나라 술집에는 일찍이 한 폭의 깃발도 용마루에 나부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주량이 대단하여, 반드시 커다란 주발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 가지고,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단숨에 마셔 버린다. 이것은 들이붓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아니다.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취(雅趣)를 즐기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술을 마셨다 하면 반드시 취하고, 취하면 반드시 주정을 하고, 주정을 하면 반드시 치고 받아 싸움을 해서, 술집의 향아리와 그릇들을 모조리 걸어차고 부수고 한다. 그러니 소위 풍류(風流)의 모임이니 문아(文雅)의 모임이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도리어 여기서와 같은 음주를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이라고 비웃는다. 비록 이 곳의 술집을 압록강 동쪽(조선을 의미함)에 옮겨다 놓는다 하더라도 밤이 이슬해지기 전에 벌써 기구와 골동품을 두드려 부수고, 꽃을 꺾어 짓밟아 놓을 것이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라.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남편의 심리’를 분석하시오. (40점, 500~700자)

[문제 2] 제시문 (라)와 (마)를 활용하여 아래 <보기>의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단,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을 반드시 포함할 것. (60점, 800~1,000자)

<보기>

최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음주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랜 시간 대학 축제 문화로 자리잡은 주점을 없애겠다는 것이 주세법 카드를 들고 나온 교육부의 의지이다.